

학회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을 마치고

구 자 율*

(*50주년 기획분과위원장, 연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1. 머리말

본 학회는 1947년 7월 9일 설립되어 금년으로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학회에서는 1997년 7월 9일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창립 50주년 기념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지난 2월 이사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그중 50주년 기념행사중 제일 빅 이벤트인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축하연을 담당 진행할 목적으로 기획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으로는 전기학회 소속 교수중 업무추진력이있는 중견교수로 구성되었다. 선임된 교수들은 준비하는 행사가 50년에 한번밖에 없다는 생각에 소명의식과 함께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이와 같은 규모와 비중이 있는 행사개최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들이 앞섰으나, 선임된 위원들은 유사한 종류의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많아 행사준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는 아무런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식 및 축하연 행사 내용 소개와 준비과정등 기록들을 남김으로서 향후 75주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실 후학 여러분에게는 도움을 주고, 현 회원에게는 진행보고를 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2. 기념식 및 축하연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이 1997년 7월 9일(수) 오후 5시~8시 30분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메카로서 1995년 7월 지하 4층 지상 12층의 새롭게 신축된 강남의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국제회의장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각계 중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기념식은 오후 5시에 개최되었는데 기념식 이틀전인 7월 7일에 관련임직원과 분과위원장 및 기획분과위원들이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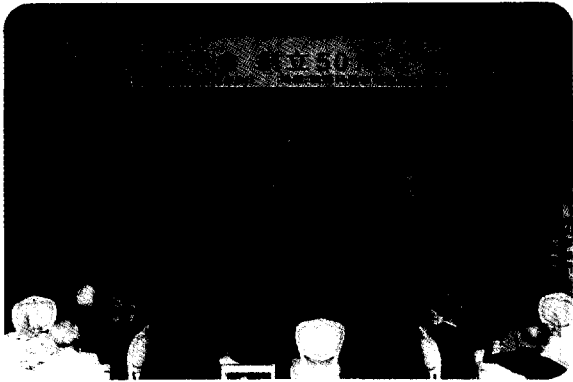
第1部 記念式 / 司會: 金光培 組織委員長

- 開會辭
- 國民儀禮
- 學會變遷史紹介: 大韓電氣學會 次期會長 李德出
- 功勞者表彰
- 記念辭: 大韓電氣學會 會長 邊勝鳳
- 祝辭: 科學技術處 長官 權肅一
- 日本電氣學會(IEEJ) 會長 正田英介(Masada Eisuke)
- 中國電機工程學會(CSEE) 理事長 張鳳祥(Zhang Fengxiang)
- 中國電工技術學會(CES) 副理事長 賴堅(Lai Jian)
- 閉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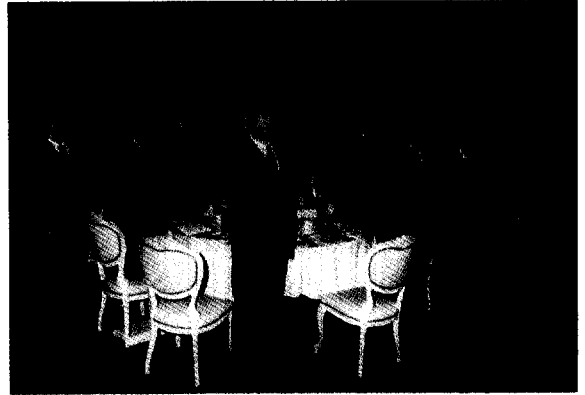
第2部 祝賀宴(發展 및 和合의 標) / 司會: 吳滋允 企劃分科委員長

- 開會
- 海外來賓紹介
- 乾杯
- 晚餐
- 閉會

제반준비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대강당에서 기념식 리허설을 과총의 협조를 얻어 1시간 반여동안 진행하면서 기념식 행사를 차질없도록 준비사항과 미비사항을 check해 나갔다. 행사당일에는 아침일찍 출근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사항들을 최종점검 완료하였고, 오후 3시부터 대강당 Hall에 등록데스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4시경부터는 우형주원로 회장을 비롯한 이승원, 양홍석, 박민호, 지철근, 백용현, 고명삼, 박영문, 황영문, 이동호, 한송엽, 유석구, 전임회장 열두분과 1947년 창립시부터 현재까지 50년간 학회회원으로 계신 김선집, 정락은, 김갑현, 신기조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우클럽 김선창 회장과 박용철, 신지수, 김상연 선생등 많은 원로회원과 일본, 중국학회 대표단과 관련단체장, 임원, 평의원, 지부장등 2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였다. 내빈으로는 과거처 권숙일 장관을 대신하여 강광남 기계전자연구조정관, 성낙정 전 한전사장과 한국전력 이종훈 사장을 비롯한 이달우 한국코트렐 회장, 유재환 현대중공업 중전기사업본부 사장, 대한전선 유채준 사장등 많은 특별회원업체 및 협찬업체 사장님 및 중역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관련기관 단체에서는 전기협회 윤희우 상근부회장과 이용희 전기조합 이사장을 비롯 권용득 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수진 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등 전기관련 단체장과 나정웅 전자공학회장을 비롯 좌경룡 정보과학회장, 송삼홍 기계학회



(기념식광경)



(50주년 기념식의 국민의례 장면)

장, 정낙삼 전자과 기술학회장, 이만영 통신정보보호학회장 등 관련학회장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다. 참석해 주신 내빈 모두 창립 반세기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대한전기학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해 주셨고, 전기학회가 장구한 기간 우리나라 전기공학계의 대표학회로서 전기산업발전과 과학기술진흥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특히 일찌기 선진외국학회와의 국제교류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창립 109년을 맞고 있는 日本電氣學會(IEEJ)를 비롯하여 中國電機工程學會(CSEE), 中國電工技術學會(CES)등 3개 외국학회에서 회장단을 비롯 임원등 16명의 많은 축하 사절단이 참가해 주시어 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었다.

김광배 조직위원장(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에서는 변승봉회장 인사말씀과 이덕출 차기회장의 학회 5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50년 변천사를 국내학회로서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로 발표하였으며, 그간 학회발전에 공이 큰 우형주 원로회장을 비롯한 28명의 회원에게 영예의 50주년 공로상과 기념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창립 50주년 공로상 수상자 명단은 오른쪽 표와 같다.

2부 축하연은 구자윤 기획분과위원장의 사회로 변승봉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일본, 중국등 외국축하대표단의 외빈 소개가 있었으며, 축하케익 컷팅과 우형주 원로회장의 건배로 한층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원탁으로 마련된 연회석에 마주앉아 학회의 눈부신 발전과 우리나라 전기계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상호 정담을 나누며 소찬을 들면서 화기에 애한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3. 기념식을 준비하며

학회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을 담당하는 기획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정기적으로 위원회 meeting을 갖으면서 50주년 기념사업의 하이라이트인 기념식 준비를

功勞賞 受賞者

1. 學會元老會長 및 前任會長
 - 禹亨 麟(第10代, 11代會長: 1967-1970)
 - 李承 院(第15代會長: 1977-1978)
 - 梁興 錫(第16代會長: 1979-1980)
 - 朴芑 鎬(第17代會長: 1981-1982)
 - 池哲 根(第18代會長: 1983-1984)
 - 白龍 鉉(第19代會長: 1985-1986)
 - 高明 三(第20代會長: 1987-1988)
 - 朴永 文(第21代會長: 1989-1990)
 - 黃煥 文(第22代會長: 1991-1992)
 - 李東 昊(第23代會長: 1993-1994)
 - 韓松 晔(第24代會長: 1995)
 - 劉錫 九(第25代會長: 1996)
2. 學會創立 元老會員
 - 金俊 植(1947-1997, 50年 會員)
 - 金善 集(1947-1997, 50年 會員)
 - 鄭樂 殷(1947-1997, 50年 會員)
 - 金甲 鉉(1947-1997, 50年 會員)
 - 辛基 祚(1947-1997, 50年 會員)
3. 學會 運營

·韓國電力公社	社長 李宗勳
·大韓電線株式會社	社長 俞彩濟
·現代重工業株式會社	社長 劉在皖
·曉星重工業株式會社	社長 柳種烈
·LG電線株式會社	社長 權攸久
·二和電機工業株式會社	會長 裴壽潤

 - 李允 種(1977-1980 副會長)
 - 成樂 正(1977-1978 副會長)
 - 文熙 晟(1985-1986 副會長)
 - 朴相 晔(1993-1995 副會長)
4. 事務局
 - 陳東 臣(理事 / 事務局長)

위하여 위원들 각자의 특성을 살린 역할 분담을 하였고 역할에 따라 준비한 사항을 기획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조직위원회를 비롯 편집, 학술, 조사, 국제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협조를 통하여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각 분과위원회의 맡은 역할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괄 → 기념 행사 및 축하연 기획, 추진전략 수립, 인설 원고 초안, VIP 명단분류, 기념품 선정, 홍보물 발송, 의전, 예산, 사회 및 기념식순, 행사참여 인원선정, 행사 리허설, 식장 데코레이션, 언론 홍보
- 홍보 → 50주년 엠블렘, 스티커, 포스터, 초청장, 봉투, 안내장, 기념품, 하계 학술회의 표지등의 디자인 제작, 홍보물인쇄

- 행사안내 → 국내의 내빈 영접·안내, 좌석배치, 영접 및 대기실 준비, 명찰, 플레이트
 - 접수 → 접수대 인원, 접수대 주변배치, 책자 및 기념품 배부, 명단작성, Name Tag 배분
 - 축하연 → 식사 내용, 써빙 절차, 식당 배치, 케익커팅 절차 및 참여 VIP 명단, 칼, 케익
 - 기타 → 초대외 글 작성, Name Tag 준비, 사진, 학회 50주년 변천사 기획, 하계학술대회 축하연
- 기획분과위원회의 업무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세우고 추진되었다.

1. 주변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처
2. 조직위원회의 전체적인 방향의 변화에 따른 행사 내용 및 절차의 미세 조정
3. 새로운 회의진행 기법 도입으로 신선한 아이디어 접목
4. 학술대회와의 행사내용 차별성 유지와 아울러 전체적인 일관성과 연속성 추구

상기와 같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1차 확정하고 진행하였다.

1. 2부 축하연은 한정된 공간으로 전 회원을 수용할 수 없기에 초청대상인원의 축소에 따라 전 회원들은 하계학술대회로 이전하여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2. 전체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단합을 유도할 수 있는 하계학술대회장소 선정
3. 50주년 기념행사 사진전은 하계학술대회장에도 전시
4. 포스터는 하계학술회의 포스터로 제작하고 50주년 행사장 포스터로 사용
5. 전기학회의 50년 변천사는 LCD 프로젝터를 사용 발표하여 신선함 제공, 기기대여 업체와 직접 접촉하여 리허설의 안정성 유도
6. 기념식 축하연회장은 원탁으로 배치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념식 및 축하연의 규모와 내용이었다. 기념식을 당초 호텔에서 성대하게 사회 각계의 여러 분을 모시고 할 것인가 아니면 알차게 전기인의 밤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다른 학회의 예와 잇다른 대기업의 부도등 침체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간략하면서도 내실있는 기념식을 하자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50주년을 맞은 국내 다른 학회가 시내의 유명 호텔에서 기념식을 연 것과는 달리, 우리 학회는 과학기술회관을 기념식장으로 정하고 축하연의 음식도 과학기술회관의 12층 과학클럽식당에서 주문하기로 하였다. 축하연의 음식은 사전에 전기학회의 회장단과 기획분과위원들이 시식을 하여 주방장에게 품격이 있으면서 적당한 양과 가격으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초청자 수는 400명 정도이지만, 실제 참석자 수는 200명 내외로 예상하였으며 비교적 정확하였다. 기념식의 2부 행사인 축하연에는 당초 대개 흥을 돋우는 행사, 즉 국악 연주나 연예인 초청 등을 기획하였으나, 산업계의 경

제불황등을 고려하여 나라경제발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를 생략하였고 하계학술대회시 특별이벤트로 회원사 및 회원친목의 밤 행사를 갖기로 하였다.

4. 맺는말

50주년 기념 사업의 기획 중에서 어려웠던 점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 초기에는 분과위원회간의 역할분담등 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지휘하며 적시에 지시를 보내며 독려하는 상호 공조체제가 4개월의 짧은기간 안에 준비 진행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기념식은 학술대회와는 달리 규모가 크고 의전에서부터 모든 행사절차나 기념만찬 음식까지 까다롭고도 세심하게 준비되어야하며, 회장단의 의견도 적절한 시기에 반영이 되어야 모든 준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향후 학회 기념사업은 우선 회장단 및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된 사항의 실행을 소수로 구성된 실무 팀이 전담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기념식을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었는데 50주년 회장단의 노력으로 각계의 후원을 얻어 무난히 달성되어 행사를 무사히 치를수가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현 회원은 천수를 누리고 덤으로 적게는 십 년 이상을 더 살아야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고 100주년 기념식이 어떤 내용과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어느 누군가는 50주년 기념사업 및 기념식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뒤적일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행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간단하나마 이 글을 두려움을 갖고 남긴다.

끝으로 기념식과 축하연 행사를 준비과정에서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1개월여 기간 매일 야근하면서 각종 회의와 준비물등 많은 업무를 무난히 잘 처리해 준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구자윤(具滋允)

1951년 2월 7일생. 1975년 서울대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1980년 프랑스 ENSEEIHT 졸업(석사). 1984년 프랑스 ENSIEG 졸업(박사). 1980년-83년 프랑스 CNRS-LEMD 연구원. 1983년-84년 프랑스 EDF 연구원(Post-Dr). 1985년-88년 한국과학기술원(계측소자연구실) 선임연구원. 1988년-현재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부교수